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논문심사

『레디컬 오럴 히스토리』와 함께

나가오카 다카시

(심 정명 옮김)

논문심사를 다시금 상상하기 위해

‘논문심사’라는 말이 꽤 권위적인 울림을 띠며, 왕왕 그런 성격을 가진 실천으로서 아카데미즘에 편입돼 온 것은 분명하다. 논리성이나 실증성, 선행연구 검토, 독창성, 학술적 의의 등등의 잣대를 텍스트에 들이대어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연구비조성사업의 신청서 양식 같은 것은 바로 이를 가시화한 것이리라. 상아탑의, 상아탑에 의한, 상아탑을 위한 제도로 학계의 보수성이나 형식주의를 상징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논문심사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겠고, 개방적인 시스템, 관여하는 사람들이 수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에 옥상옥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해(결코 귀찮기 때문이 아니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다.

『MFE』의 경우 적어도 위에서 말한 권위주의적·형식주의적 스타일의 심사는 배제한다. 이 잡지는 “왕왕 “이것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연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사전 평가가 선행하기 일쑤인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富

山一郎·古川岳志·沈正明, 「はじめに」, 『MFE』 창간준비호, 2020년 3월) 위에 성립하고 있으므로 텍스트의 ‘ 좋고 나쁨 ’ 을 판정하는 척도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논문’이나 ‘연구’라는 카테고리의 폐쇄성을 깨기 위해서는 “이것은 논문인가 아닌가”, “연구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초장부터 포기해 버리면 될까?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이 긍정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논문’이나 ‘연구’라는 카테고리를 되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너뛰어 버리게 되고, 편집이라는 실천·프로세스의 비평성은 말소될 것이다. 『MFE』는 특히 인터넷 잡지기 때문에 개개인이 혼자 블로그를 쓰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알 수 없어진다.

따라서 심사라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뿐 아니라 심사—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편집 실천이라고 해도 좋겠다—를 새로운 형태로 다시금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긍정적인 논의로 향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심사란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자. 즉 학계에서 통용되는 심사 규칙을 무반성적으로 적용하지도 않거니와 투고 논문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하는 것도 아닌 비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편집 실천이 가능할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고, 애초에 그러한 일종의 매뉴얼화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이 글은 도래할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심사’를 위한 공개 각서 같은 것으로서 쓰일 것이다. 사고의 단서로 삼고 싶은 것은 심사라는 문제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호카리 미노루(保莉実)의 ‘갯 너머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의다.

『래디컬 오럴 히스토리』

호카리 미노루의 『래디컬 오럴 히스토리 (ラジカル・オーラル・ヒストリー)』는 2004년에 오차노미즈쇼보(御茶の水書房)에서 간행되었다가 2016년에 이와나미(岩波) 현대문고 중 한 권으로 재간행되었다. 부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선주민 어보리진의 역사 실천’이라 비교적 평범한(?) 학술서인가 싶겠지만 “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호카리 미노루라고 합니다” (3 쪽, 이하 인용은 이와나미 현대문고판)라는 첫 문장부터 “이건 좀 다르다”라는 분위기를 풍긴다. 이 책 구성 자체가 가지는 실험적 성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텍스트가 추구하는 주제부터 살펴보자. 저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리토리의 구린지(Gurindji)라는 언어 그룹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필드워크를 했다. 구린지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이야기에서는 “동물이 말을 걸지 않나, 식물이 말을 걸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돌도 역사를 이야기한다” (19 쪽).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구린지가 사는 지역

을 방문했다는, ‘사실’과는 다른 에피소드도 이야기한다. 역사학자로서 저자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호카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보리진 사람들이 대지가 백인에게 징벌을 내렸다는 역사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대지’가 목장에서 백인이 죽었다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의 역사 행위자였다면 어떤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정말로 대지가 백인에게 징벌을 내렸다고 한다면 어떤가? 역사학자인 내가 그러한 역사 서술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은 역사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13-14 쪽)

호카리는 꽤 성가신 물음을 제기한다.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은 역사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듯 리버럴한 입장을 표방하는 인문학자는 “대지가 백인에게 징벌을 내렸다는 역사분석”을 ‘존중’하는 데에는 반감이 없다. 하지만 그 경우 어보리진의 역사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비유’로서 수용되고 학술적인 방식에 입각해 추구해야 할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차원에 격리되어 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구린지의 장로가 역사학회나 인류학회에 초대되어 “대지가 백인에게 징벌을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들 박수갈채를 보내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보리진 사람이 어보리진 문화권

(발화 위치)에서 대지의 목소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학자님들은 다들 문화상대주의니 다른 문화 존중이니 하는 걸 잘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이라는 자격으로 연구 발표를 하는 발화위치를 부여받은 제가 학회 발표 자리에서 “목장에서 이백인이 죽은 것은 대지가 그에게 징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다들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의심 받아도 어쩔 수 없나요.(14 쪽)

호카리는 학계에서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이 모양만 그럴싸한 배제로 끝나 버리는 경향을 엄정하게 비판하며 학술적 역사학만이 ‘역사적 사실’을 독점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믿음에 도전하려 한다.

호카리는 어보리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역사와 관계를 맺는 것을 ‘역사 실천 historical practice’이라 부르는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선주민의 특수성이 아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역사 실천을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여행지에서 명소 유적을 방문하거나 텔레비전 사극을 보거나 혹은 역사를 다룬 만화나 게임을 통해 우리는 역사 실천을 반복한다. 그리고 학계 역사학자들의 이른바 연구 활동도 이러한 다양한 역사 실천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학술적 역사학 = ‘역사적 사실’ / 어보리진의 역사 이야기 = ‘비유’라는 이항대립을 쪼개면서 그는 다른 역사 시공들

사이의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당신은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실은 신화에요. 하지만 뭐, 저는 그걸 신화로서 존중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깊이 공유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진지한 경험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역사 경험과 제 역사 이해 사이의 접속 가능성이나 공주(共奏) 가능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고 할 수는 있지 않나.(30 쪽)

슬슬 “논문심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간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쓴 시점에서 맨 처음에 말한 논문심사(편집 실천)를 다시금 상상한다는 과제와 어쩐지 반항하는 무언가를 느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일단 ‘역사적 사실’을 독점하려고 하는 역사학을 전형적인 심사 제도에, 어보리진의 역사 실천을 “이것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연구라고 할 수 없다”며 배제되어 온 논의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전자의 대응관계는 그렇다 쳐도 후자는 조금 억지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본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님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이야기를 조금 더 밀고 나가 보겠다.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 과 비판 가능성

대학원생 때 스기하라 도루(杉原達) 선생님 세미나(2005년)의 과제도서로 함

게 읽은 것이 『래디컬 오럴 히스토리』와의 만남이었다. 그때 한 메모(정확하게는 스기하라 선생님이 세미나 참석자의 의견을 정리한 메모)에 따르면 나는 다음과 같은 감상을 이야기했다.

지미 할아버지의 역사 이야기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떠받들고 끌어내리고! /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터. 그것을 자기 말로 최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지. (「호카리 미노루, 『래디컬 오럴 히스토리』 독서회」, 2005. 6. 10.)

15년도 더 전이지만 확실히 이렇게 말했든가 썼든가 한 기억이 있다.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으니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다. ‘지미 할아버지’란 호카리가 역사를 배운 어보리진 지미 만가야리라는 인물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미 할아버지를 비롯해 구린지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에는 학계 역사학 혹은 딱히 학술적이지 않더라도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친숙한 사람들은 쉽게 믿기 힘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호카리는 그것을 신화나 ‘비유’라는 안전지대에 격리하기를 거부하고, 학계 역사학과 사이에서 ‘역사에 대한 진지함’을 공유하는 역사 실천들 간의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호소한다.

그렇기에 호카리는 구린지의 세계관을 정성껏 소개하고 그 역사 실천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더듬어 찾으려 했다. 당시 나도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에는 이의가 없었을 테지만, 위의 메모에서는 비교적 비판적인

논평을 하고 있다. 호카리의 작업은 구린지의 역사 실천을 훌륭히 소개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비판성이 보이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려면 타자의 이야기를 소개·해설할 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비판적인 응답(의 경로)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호카리 또한 어보리진의 문화를 떠받들고 끌어내리는 것이 돼 버리지 않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쩐지 펍 도량이 좁은 의견이다. 연구자니까 뭔가 비판적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나 보다. 그렇지만 옛날의 내 기분도 알 것 같다. 식민주주의의 불균등한 힘 관계를 생각하면 우선은 서양 근대에 유래하는 아카데미즘 쪽이 어보리진 쪽의 역사 실천에 겹쳐히 귀를 기울인다는 자세는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더 파고 들어서 논의해야만 하는 것 아닐까? 호카리의 논의에서 어보리진의 역사 실천을 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학술적인 역사학이고,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성은 별로 사고되지 않는다. 물론 손쉽고 단순하게 ‘반대되는 방향성’을 따라가려 하면 “이것은 틀린 역사다”(184 쪽)라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몸짓에 빠지기 쉬우니까 호카리가 신중해지는 것은 무리도 아니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벡터가 한 방향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는 것이 호카리가 제기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래디컬 오럴 히스토리』는 실은 이 문제도 언급한다. 이 책의 원형인 그의 박사논문 심사자의 논평이 일본어로 번역되

어 실려 있는데, 거기서 심사자 중 하나가 “자신의 연구를 구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호카리 씨의 용감하고 윤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구린지 사람들은 호카리 씨에게 인류학적인 상상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한다. 결국 “유럽인과 구린지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격리된 채 대립되고 모순되는 의미의 그물 속에 영원히 붙잡혀 버리는” 것 아니냐고 (286 쪽). 아마 이 심사자도 위에서 말한 내 의문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심사자’ 라는 말이 나온 김에 다시 심사 문제에 눈을 돌려보자. 앞서 말했듯 여기서 나는 학술적인 역사학과 어보리진의 역사 실천의 관계를 심사 제도와 거기서 주변화·외부화되는 텍스트들의 관계에 대응시켜서 생각하려 한다. 거기에 호카리의 프로젝트를 겹쳐 놓는다면 심사 제도와 그러한 다양한 텍스트들 사이의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 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방향은 심사자가 기존의 학술적인 척도를 괄호에 넣고 다양한 텍스트를 연구 실천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노력을 아까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서로의 비판 가능성을 담보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아카데미즘의 안과 밖을 둘러싼 물음을 건너뛰게 되지 않을까?

지면상의 북 론칭이라는 시도

지금까지 『래디컬 오럴 히스토리』 가 달성한 것보다 남아있는 과제 쪽을 좀 더 많이 강조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 책을 진정 독창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에 대

해 아직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책은 호카리 미노루의 단독 저서지만 그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바탕이 된 박사 논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나 다른 저자가 쓴 글의 번역, 친교가 있던 연구자의 해설, 그리고 상상속의 출판 파티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을 하게 된 사정이 뭐든, 이 다성적인 장치가 호카리의 프로젝트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것 아닐까?

이 책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호카리의 연구를 크게 칭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유보를 다는 사람도 있다. 앞서 소개한 박사논문 심사자의 의견도 그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 내용보다는 이러한 형식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령 제 1 장은 이 책 간행을 기념하는 출판 파티 (북 론칭) 회장의 실황 중계라는 설정으로 쓰여 있다. 먼저 호카리가 그의 기본적인 주장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몇몇 출석자가 질문이나 논평을 한다. 거기에 호카리가 다시 응답하는 형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다. 질문자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다른 심포지엄에서 호카리의 발표에 실제로 제기된 질문을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49 쪽). 또 제 8 장 「찬반양론·떠들썩한 반응: 절찬에서 출판 거부까지」 는 인포먼트인 구린지 주민이나 연구자, 편집자들의 반응을 제시한다. 내가 읽기로는 호카리의 접근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 (앞서 말한 심사자의 비판 같은) 에 대해서는 그가 설득력 있는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5 년 전의 나는 거기에 불만

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해석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호카리가 자신의 텍스트가 타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무척이나 —오해의 여지를 무릅쓰고 말하면 자의식 과잉이라 할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다. 호카리는 역사학에서 자명하게 여겨 온 세속주의적 세계관에 대담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학계 반대편으로 건너가 ‘뉴 에이지 이데올로기’에 침잠하는 것(297 쪽, 제 8장에서 심사자 중 하나는 이렇게 비판한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호카리는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신의 미완성 논의를 칭찬과 비판이 뒤섞인 학계 반응과 병렬시킬 뿐 아니라 거기서 역지로 반론하여 모놀로그로 재회수하는 대신 불협화음을 띤 다층적인 논쟁적 텍스트로서 독자에게 던져줌으로써 학계도 포함한 논의의 계속을 요구한다. 이 책 독자는 이러한 논의에 입회해 스스로 공감이나 당혹감, 반발을 경험하는 가운데 ‘갭 너머의 커뮤니케이션’의 (불)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자신의 것으로서 제기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말하자면 심사라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 혹은 기점이 된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깃들여 있다.

여기까지 오면 심사와 관련해 내가 서두에서 제기한 물음과 복수의 역사 실천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호카리의 물음을 나눌 필요는 없어진다. 학계 외연을 확장하거나 교란시키는 일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필자가 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관대한 심사자나 편집자가 다양한 텍

스트를 무조건 받아들임으로써 실현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병렬하는 투기장(arena)이 성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카리의 책은 가르쳐주는 것 아닐까? 아마도 이 투기장에서 ‘심사’하는 사람은 단순한 스태프, 무대 뒤에서 연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들 또한 자기 읽기의 위치성이나 그 근거에 답해야 하는 연기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에(온라인) 잡지라는 매체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마는.